

## 흑인 여성 패션모델의 이미지 분석

류수현\* · 김민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 Image Analysis of Black Female Fashion Models

Soo-Hyeon Rhew\* · Min-Ja Kim\*\*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current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8. 10. 22, 심사(수정)일: 2009. 2. 16, 게재확정일: 2009. 2. 1)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black images as 'the other' in history and aims to analyze images of black female fashion models which have been changed in modern society, particularly in 21<sup>st</sup> century post-modern world .

Black images, established historically as illustrated on the paintings in 19<sup>th</sup> century, were disseminated in 20<sup>th</sup> century throughout the world especially by way of TV and movies as several typical images such as 'Coon' the clown as the object of entertainment, 'Buck' wild and resistant black rascal, and 'Mammy' obedient and fat black woman servant. The result of image analysis of black female fashion model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ve images. The first is the image of 'powerful'. Black female models frequently represent healthy image which reflects black people's excellence in sports and also the traditional image of black skin color as strength. The second is the image of 'sexy'. They are adored as having perfect ideal body shape. They show off their sex appeal with their body. The third image is 'multicultural'. Black models represent cultures besides the western. The fourth is the image of 'fantastic'. In contrast to the real, resonable things, black female models represent wild, fancy, ghost things. The fifth is the image of 'racial discrimination'. By arranging them in contrast to whites, a metaphoric image of racial discrimination can be displayed. The result shows that some of racial images still remain on the other way.

Key words: black female(흑인 여성), fashion model(패션모델), racism(인종주의), image(이미지)

## I. 서론

패션모델은 디자이너가 창작한 의상에 생명감을 불어넣어 관객이나 소비자에게 디자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전문가이며 따라서 모델이 입은 의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창작경험을 하게 한다.<sup>1)</sup> 패션모델은 패션상품의 판매적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것 외에도 그 시대의 이상적인 미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서양에서는 주로 백인 여성들이 미의 이상형으로서 모델로 기용되어 왔으나 1990년대부터 나오미 캠벨(Naomi Campbell)을 비롯하여 흑인 여성 모델의 등장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으며 성공을 거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흑인은 역사적으로 서양에서 대표적인 인종주의의 피해자였다. 흑인은 이성(理性)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백인과 다른 외모를 부각시켜 원숭이와 비슷한 동물, 혹은 괴물로 취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흑인 여성이 미의 이상형인 모델로서 등장하여 각광받고 있다. 이는 서양의 뿌리깊은 인종주의적 배경 속에서, 백인 여성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흑인은 사전적 의미로서는 백인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검은 피부를 가진 인종<sup>2)</sup>을 뜻하는 말이다. 흑인은 긴 세월동안 백인사회에 함께 존재하면서 처음 아프리카에서 건너왔을 때와는 인종자체에 있어서는 순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흑인 해방 운동을 한 흑인 지식인층도 대부분이 혼혈이었다. 그들은 혼혈이 되었다라든가 피 한 방울의 법칙<sup>3)</sup>에 따라 흑인으로 분류되어 차별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흑인 집단의 일원이며 흑인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선언했다. 흑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넘어서 그들 문화의 주인이 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은 피부를 가진 여성 모델을 흑인 여성 모델로서 분석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패션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흑인 여성 모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흑인 패

션 문화로서 1960년대에 유행하고 1990년대 말에 재조명된 아프로(Afro) 패션에 관한 디자인 연구<sup>4)</sup>가 있었으며 현재 흑인들만이 가진 독특한 패션세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흑인 패션 문화에 대한 접근의 일환으로, 역사 속에서 타자로서 다루어진 흑인의 이미지를 살펴보고, 현대 사회에서, 특히 21세기 포스트모던시대에 변화된 흑인 여성 패션모델의 이미지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서구 사회에서 흑인 여성 모델을 비롯한 타인종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서양 역사 속에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흑인에 대한 인식과 흑인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 특히 회화와 대중매체를 통해 정형화된 흑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2000년 이후 미국 보그지에 나타난 흑인 여성 모델들의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흑인 여성 패션모델이 가진 이미지의 특성을 도출해 본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서양, 특히 미국의 역사 속에서의 흑인과 흑인문화와 패션 모델의 역사와 의의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미국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곳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각의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비교해볼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발행된 2000년부터 2008년 8월까지의 보그지에 실린 흑인 여성 모델의 사진자료 총 331점과 그 기사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모리스(Morris)의 모델 구분<sup>5)</sup>에 따라 캐워크 모델 및 사진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패션모델들의 사진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 II. 서양 역사 속의 흑인 및 흑인문화에 대한 고찰

### 1. 인종주의의 개념과 역사

역사적으로, 서양에서는 타민족에 대한 종교적 영토적 지배의 도구로서 인종주의적 시각을 구축해왔다. 인종은 생물학적 혹은 사회과학적으로 접근 가능

한 개념이나, 다원화된 현대에서 명확하게 구분되기가 힘들다. 이런 불분명하며 인간 집단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가정하는 인종 개념에 의존하는 이데올로기를 인종주의라고 부르며,<sup>6)</sup> 인종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신념, 실천 기관 등을 인종차별 혹은 인종차별주의<sup>7)</sup>라고 한다.

근대적 인종주의는 15세기에 포르투갈 선박들이 이슬람 세력을 누르고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흑인들을 납치하여 포르투갈에서 노예로 팔기 시작함으로써 시작되었다.<sup>8)</sup> 17세기 말이 되자, 노예제의 제도화와 흑인들의 인종적 열등성을 주장하기 위해 흑인은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노예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sup>9)</sup>

18세기의 계몽사상가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보편성을 믿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비유럽인에게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인간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식민지배와 비유럽인의 노예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비이성, 야만성과 동일시하였다.<sup>10)</sup>

19세기에 들어와서 인종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찾으려는 노력은 해부학, 생리학, 언어학 등 여러 분야에서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19세기 중반,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진화론으로 인해 새로운 인종주의 이론이 등장했다. 다윈은 모든 인류는 하나의 조상에서 비롯되었으나 자연적 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 변이되어 여러 인종으로 분리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사회적 다윈리즘(Darwinism)으로 확대되어 유전적으로 우월한 서양인이 열등한 식민지인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법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화되었다.<sup>11)</sup> 이렇듯 근대에 이루어진 과학의 발달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인종주의를 뒷받침해주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유대인 학살의 비극을 경험한 유럽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 인종주의적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기 시작하였고,<sup>12)</sup> 흑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 또한 1차 세계 대전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할렘 르네상스는 뉴욕의 할렘을 중심으로 흑인의 예술적 창조성이 싹트고 결집되어 분출된 사건이었다. 이는 60년대의 보다 급진적인 성격의 '흑인예술운동'으로 그 흐름이 이어져, 미국 흑인들이

자신들의 가치기준과 예술관에 근거한 흑인 예술을 창출하고 그 예술 활동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흑인의 민족주의와 흑인 미학, 검은 것은 아름답다('Black is beauty')는 주장 등을 정치적, 심리적, 문화적 해방의 슬로건으로 선포하였다.<sup>13)</sup> 특히 인종주의의 원인이 되었던 외형적인 특징을 오히려 '자연스런' 외모로서 더욱 뽐내었고, 아프리카 민속복에서 영감을 받은 아프로(Afro) 패션을 등장시켰으며, 이는 백인들에게까지 유행되었다.<sup>14)</sup> 특히 흑인들은 스포츠와 오락 같은 그런 인기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띄었기 때문에 '블랙 파워'(Black Power)의 구호는 상당한 힘을 얻었다.<sup>15)</sup> 이렇듯 흑인은 스포츠, 예술 분야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차츰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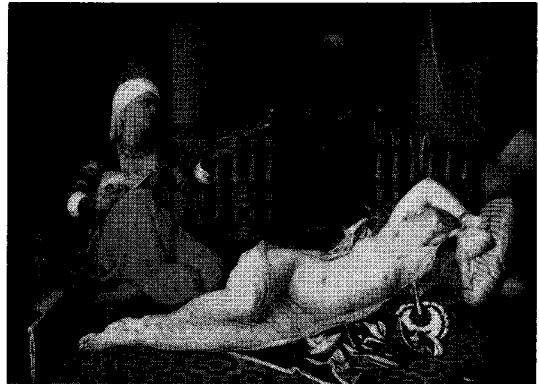
## 2. 인종 차별주의적 시각으로 본 흑인의 이미지

### 1) 회화에 나타난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주의적 시각

19세기 회화를 살펴보면 우월한 백인과 열등한 흑인으로서 인종차별적 개념이 등장한다. 장 마르크 나티에(Jean-Marc Nattier)의 <육실의 클레르몽 양(Mademoiselle de Clermont au bain)>(1733)<그림 1><sup>16)</sup>에서 흰 피부와 검은 피부의 노골적인 대조는 19세기 회화의 주요 모티프가 되었다. 흑인 노예들이 오달리스크(odalisque)나 하렘(harem) 미인들의 시중을 드는 형태는 19세기 중반까지 자주 그려졌다.<sup>17)</sup> 흑인 노예들이 바닥에 앉아 백인인 주인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은 백인들의 흰 피부를 미화키는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sup>18)</sup> 앙그르(Jean Auquste Dominique Ingres)의 <노예가 있는 오달리스크(L'Odalisque à l'esclave)>(1839)<그림 2><sup>19)</sup>에서도 흰 피부를 가진 여성이 제일 앞에, 그 뒤에 아랍계 여인이, 제일 뒤에 흑인 노예가 서있는 구성으로 피부색에 의한 인종적인 우열과 신분질서를 나타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마네(Ed. Manet)의 <올랭피아(Olympia)>(1863)<그림 3><sup>20)</sup>에서도 '백인과 그를 시중드는 흑인'의 배치는 계속된다.<sup>21)</sup> 백인 여성의 몸매와는 대비되는 뚱뚱한 모습은 후에 정형화되는 흑



<그림 1> 나티에 '욕실의 끌레르몽 양'(1733)  
(世界美術大全集:西洋編 18권, p. 344)



<그림 2> 앵그르 '노예가 있는 오달리스크'(1839)  
(世界美術大全集:西洋編 19권, pp. 141~142)



<그림 3> 마네 '올랭피아'(1863)  
(現代世界美術全集 1권 p. 9)



<그림 4> 고갱 '테 나베 나베 페누아'(1892)  
(세계미술문고30 제1권, p. 33)

인 하녀의 외모를 보여주고 있다. 흑인 하녀는 로르(Laure)라는 이름의 아프리카계 카리브 여성을 모델로 한 것으로, 서양식과 아프리카식이 섞여 있는 하녀의 옷차림은 그녀가 처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머리에 두른 터번은 파리에서 이국적인 타자의 기호로 인식되는 특수한 지리적·문화적인 정체성에 그녀가 속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sup>22)</sup> 이는 흑인이라는 집단이 비단 아프리카로부터 온 니그로

(Negro) 인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노예로서 다루어진 모든 인종이 포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프리카 흑인 외에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인들도 흑인으로 신분이 확정되었으며, 백인 우월주의에 따라 백인과의 혼혈까지도 흑인으로 분류되었다.<sup>23)</sup> 즉, '흑인'은 '니그로 인'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닌, 노예로서 인종차별을 받는 모든 인종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으며, 회화를 통해서도 흑인에 포함된 복합문화적인

시각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 패배했던 계몽주의적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타자를 여성, 원시로 재현하는 방식이 회화에 나타났다. 고갱(Gauguin)의 그림에 나타난 타히티의 여인들은 동물적인 원시성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었다. 고갱의 어린 신부였던 테하아마나를 그린 〈테 나베 나베 페누아(Te nave nave fenua)〉(1892)〈그림 4〉<sup>24)</sup>에 대해서 비평가 프랑수아 티에보-시송(François Thiébaud-Sisson)은, 그녀를 음탕한 동시에 퇴화된 원숭이로 비유하여, 이 그림은 유럽의 인종주의적 사고와 이국적인 개념의 상징으로 수용되었다.<sup>25)</sup> 즉, 그녀는 여성일 뿐 아니라 인종주의적 차별의 대상이 된 흑인의 원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세기 회화를 통해서 흑인 여성들은 백인을 미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백인과 반대되는 모든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조다노바(Jordanova)가 제시한 18·19세기 과학과 의학에 나타난 이분법적인 성별 체계에 따르면 남성은 이성, 문화, 과학과 문명 등을 의미한 반면, 여성은 감정, 자연, 육체적, 어둠 등을 의미하였다.<sup>26)</sup> 이러한 면은 타히티 여성에서 더욱 드러나게 되면서, 인간이 아닌 원시적, 야만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키는 이미지로 인식되었다.

## 2) 대중매체를 통해 정형화된 흑인의 이미지

인종차별법의 철폐와 흑인들의 다양한 권리회복운동들을 통해 겉으로는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듯하였으나, 70년대 오일쇼크와 아시아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서양 경제에 위협이 되자 80년대 이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sup>27)</sup> 즉, 몇 가지의 정형화된 흑인의 이미지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18세기 계몽주의시대에 제도화되기 시작한 문학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서구 근대문학은 인종주의의 이데올로기화를 기록하고, 유포시키고 영속화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였다.<sup>28)</sup> 이러한 이미지들이 20세기 이후에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시각화 매체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살아있는 이미지로 재탄생되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TV, 영화 및 언론매체를 통해 정형

화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대표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이상적인 흑인 노예상 ‘톰(Tom)’ 혹은 ‘แซม보(Sambo)’ 이미지이다. 이는 명랑하게 웃고, 온순하며, 열심히 일하며, 백인 주인 말에 순종하는 착한 노예상이다.<sup>29)</sup> 해리엇 비처 스토우(Harriet Beecher Stowe)의 ‘톰아저씨의 오두막(Uncle Tom's Cabin)’이란 소설에 등장하였고 이것이 에드윈 포터(Edwin S. Porter) 감독에 의해 1903년 영화화되어, 이후에도 이런 착한 노예상을 ‘톰(Tom)’ 이미지라고 칭하게 된 것이다.<sup>30)</sup> ‘톰’ 이미지는 순종성, 온순성,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이미지이나, 선천적 노예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흑인 멸시사상을 반영하는 ‘쿤(Coon)’의 이미지이다. 노예들이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면서 백인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자, 백인처럼 행동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웃음거리의 행동만 연출하는 ‘쿤’으로 흑인을 이미지화하여 어리석고 좁은 자라는 듯한 열등 인종으로 만들어버렸다.<sup>31)</sup> 이는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만든 영화 ‘열명의 피커니니(Ten Pickaninnies)’(1904)에서 최초로 이미지화되었고, ‘쿤의 슬픔과 결혼(Wooing and Wedding of A Coon)’(1905)란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쿤은 게으르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인간 이하의 짐승으로, 절도, 무식한 영어 지껄이기 등으로 묘사되어왔다.<sup>32)</sup> ‘쿤’의 이미지는 백치성, 유희성과 함께 범죄자적인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흑인과 백인간의 혼혈인 ‘물래토(Mulatto)’ 이미지이다.<sup>33)</sup> 이들은 백인이 아닌 흑인으로 분류되어, 항상 비극의 주인공, 비극의 원인으로 간주되어 나타난다. 이는 ‘부채(The Debt)’(1912)라는 영화에서 등장했는데, 백인 남자와 물래토 여자는 결국 흑인 혼혈이라는 이유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는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다면 모두 흑인이라는 백인 우월주의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예이다. 즉, ‘물래토’ 이미지는 비극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네 번째로는 난폭하고 저항적인 악당 남자 흑인의

이미지인 '벅(Buck)'이다.<sup>34)</sup> 그리피스(David Wark Griffith)의 '국가의 탄생(The Birth of a Nation)' (1915)에서 벅의 이미지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야만적인 폭도의 모습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서슴없이 행사하는 위험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즉, '벅'의 이미지는 강한 힘을 가진 포악한 범죄자의 이미지이다.

다섯 번째로는, 순종 잘하는 여성 하인상 '매미(Mammy)'의 이미지이다. 이것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뚱뚱하고 노래하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며, 백인 주인집 자식들을 보살피는 하인상으로 마음씨 좋은 뚱보 아줌마의 모습이다. 가정에서는 발인권이 가장 센 실질적 가장으로서, 부계사회인 백인사회와 대조적으로 흑인은 모계사회임을 강조하며 미개적인 또는 원시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백인 남성에게 성적 욕구의 대상이 됨을 감추기 위해 못생긴 뚱보 아줌마로 전락시켜 백인 여성과는 경쟁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sup>35)</sup> '매미'의 이미지는 성적 매력 없이, 순종적이고 성실한 '뚱뚱' 이미지의 여성적 정형이라고 볼 수 있다.

백인은 자신의 인종적·문화적·도덕적·지적·기술적 우월성을 확보함으로써 타자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반면 타자는 언어, 기호, 이미지 등으로 재현되며, 재현은 타자에 대한 상투적이며 고정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sup>36)</sup> 그렇게 만들어낸 이미지는 탈식민주의적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현대 포스트모던 시대에 많이 해체되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사회 구성구석에서 존재하고 있다.

### Ⅲ. 흑인 여성 패션 모델의 이미지 분석

#### 1. 대표적 흑인 여성 패션 모델

1868년 최초의 의상디자이너인 찰스 워스(Charles Frederick Worth)가 자신의 부인에게 의상을 입혀 대중 앞에 선을 보였는데, 이를 살아있는 모델이 등장한 최초의 패션쇼로 간주하며 현대 패션모델의 기

원으로 본다.<sup>37)</sup> 1920년대 모델에이전시가 세워진 후, 패션모델계는 그 입지를 굳혀 왔으며, 60년대에는 슈림프톤(Jean Shrimpton)과 트위기(Twiggy)의 등장으로 스타 패션모델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고, 80년대에 등장한 슈퍼모델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미의 상징이 되었다.<sup>38)</sup> 하지만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패션 모델계에 있어서 흑인과 백인의 분야는 나뉘어져 있었다. 백인 여성을 위한 옷과 흑인 여성을 위한 옷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패션 잡지도 백인과 흑인을 위한 잡지가 구분되어 있었다.<sup>39)</sup> 1974년 흑인 여성 최초로 베벌리 존슨(Beverly Johnson)이 보그지의 커버를 장식하면서, 흑인 여성 패션모델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풍의 패션이 유행하게 됨에 따라 흑인 여성 모델들을 기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모델계의 문은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니었으며, 흑인 여성 모델들은 백인 여성 모델들 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다. 특히, 이국적인(exotic) 이미지외에는 흑인 여성 모델은 거의 기용되지 않았다.<sup>40)</sup> 즉, 흑인 여성들은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주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90년대 등장한 슈퍼 모델 나오미 캠벨의 출현은 흑인 패션 모델계 뿐 아니라 전체 패션 모델계에서 획기적이었다.<sup>41)</sup> 기존의 흑인 여성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백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선망할 만한 몸매와 패션 감각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모든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해 냈으며, 헤어, 메이크업 또한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sup>42)</sup>

나오미 캠벨의 등장 이후 흑인 여성 패션 모델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화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용이 활발해졌다. 또한 이만 압둘 마지드(Iman Abdul Majid) 등은 패션계를 위한 흑인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sup>43)</sup> 이탈리아 판 보그지는 2008년 7월호로 대표적 흑인 여성모델들로만 이루어진 'Black Issue'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 실린 모델들은 알렉 웨크(Alek Wek), 나오미 캠벨, 리아 케베데(Liya Kebede), 알바 친(Alva Chinn), 세실리아 로페즈(Sessilee Lopez), 우바(Ubah), 키아라 카부쿠루(Kiara Kabukuru), 노미 르누아(Noemie

Lenoir), 베로니카 웹(Veronica Web), 아를레니스 소사(Arlenis Sosa), 카렌 알렉산더(Karen Alexander), 야스민 와르세임(Yasmin Warsame), 이만 압둘 마지드, 주르단 던(Jourdan Dunn), 게일 오닐(Gail O'Neil), 샤넬 이만(Chanel Iman), 팻 클리브랜드(Pat Cleveland), 토카라 존스(Toccarra Jones), 타이라 बैं크스(Tyra Lynn Banks)로, 과거 및 현재 활동 중인 가장 유명한 흑인 여성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다.

## 2. 흑인 여성 패션 모델의 이미지 특성

2000년에서 2008년 8월까지 발행된 미국 보그지에 실린 흑인 여성 패션 모델들의 사진자료 342점과 그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패션 모델인 만큼 다양한 패션 이미지를 소화하고 있었지만, 특징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미지가 있었으며, 이를 흑인 여성 모델들이 백인 여성 모델들과는 차별되게 지니는 이미지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패션모델은 나오미 캠벨, 알렉 웹, 리야 케베테, 이만 압둘 마지드, 토미코 프레이저(Tomiko Fraser), 샤넬 이만, 아를레니스 소사, 주르단 던, 베벌리 존슨, 로슈바 윌리엄스(Roshumba Williams), 나오미 심스(Naomi Sims), 키아라 카부쿠루, 카렌 알렉산더, 베벌리 필(Beverly Peele), 케이사 내쉬-위태커(Keisha Nash-Whitaker) 등이다.

### 1) 강인성

강인성은 흑인 모델의 이미지에서 기본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여졌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검은 피부, 두 번째로는 그들의 강하고 탄탄한 근육에서 강인함이 드러난다.

노예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 이미 영국사회는 검은색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흰색은 천사, 평화, 깨끗함, 청결함을 상징하는 색인 반면, 검은색은 죽음, 죄, 마귀 등을 상징하는 색깔로 여겨졌다.<sup>44)</sup> 이러한 서양인들의 '검은 색'에 대한 부정적 편견-어둠, 야만, 두려움의 대상-은 그들의 검은 피부 색 자체에서 위협적인 강인함을 느꼈다. 이러한 이미지는 난폭하고 폭력적인 '빅'과 억측스러운 하녀 '매

미'의 이미지로 이어졌다. 그 뿐 아니라 각종 스포츠에서 발휘되는 우수한 성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육체적인 강인함은 그들이 실제로 '강하다'라는 인상을 심어주었고, 이는 강인함의 이미지를 보완해 주면서, 운동선수가 아닌 패션모델에게서도 그 이미지는 이어지게 된다. 사진에서도 남성적<그림 5><sup>45)</sup>이거나, 스포티브한 이미지의 복식<그림 6><sup>46)</sup>, 부피가 커서 힘을 느끼게 하는 복식을 자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오는 두렵고 어두운 측면의 강함이 아니라 강인한 아름다움, 강한 카리스마로 연결된다. 특히 보그지에서는 흑인 여성 스포츠 선수에 대한 특집들을 자주 다루면서, 그들의 몸의 아름다움을 논하고 있었다. 권투선수인 라일라 알리(Laila Ali), 제시카 레이콕지(Jessica Rakoczy), 테니스 선수인 세레나 윌리엄스(Serena Williams), 비너스 윌리엄스(Venus Williams), 육상선수인 매리언 존스(Marion Jones), 앨리슨 펠릭스(Allyson Felix) 등에 대한 기사와 함께 여러 컷의 화보사진들로 장식하면서 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보그지라는 패션과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세계적 권위를 가진 잡지에서 백인 여성 운동선수들 보다는 흑인 여성 운동선수들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은, 흑인 여성의 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만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 강렬함 때문에 흑인 모델들을 기용하고 싶어 한다.<sup>47)</sup> 프라다는 1997년 나오미 캠벨을 모델로 기용한 이후 거의 10여년 만에 주르단 던(Jourdan Dunn)을 기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캐스팅 디렉터(casting director)인 러셀 마시(Russel Marsh)는 '나오미는 우아하고 강했다. 그리고 주르단은 자신감이 넘치고 그 특별한 쇼를 위해 모델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sup>48)</sup> 검은 피부와 강렬한 눈빛에서 뿜어지는 카리스마는 육체적 강함과 만나, 상대방을 압도하는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 2) 관능성

패션모델에게 있어 모든 분위기를 카멜레온처럼 소화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관



〈그림 5〉 나오미 캠벨  
(보그 2007년 1월호, p. 62)



〈그림 6〉 리아 케베데 (왼쪽)  
외(보그 2004년3월호, p. 566)



〈그림 7〉 나오미  
캠벨(보그  
2004년 1월호  
p. 38)



〈그림 8〉 알렉  
헝(보그  
2001년9월호 p.  
358)

능적인 이미지는 필수적이다. 또한 여성복 디자이너가 가장 많이 지향하고 있는 이미지가 관능적인 이미지이고, 그것이 바로 여성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오미 캠벨(그림 7)<sup>49)</sup>은 흑진주라 불리는 클레오파트라를 연상시킬 만큼 섹시하면서도 우아함을 갖추고 있으며, 백인과는 다른 독특한 흑인만의 아름다운 외모와 완벽에 가까운 몸매, 세련된 워킹으로 15세에 캣워크(catwalk)를 시작하여 프랑스판 보그지 최초의 흑인 표지모델이 되었고,<sup>50)</sup> 타임지의 최초 흑인 여성 표지모델이 되었으며, 1991년 피플지(People)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50 Most Beautiful People in the World)에 뽑혔고, 2004년 여성 세계상(Women's World Awards)에서 월드 패션 아이콘상을 수상하였다. 2007년 3월 12일 영국 일간 신문 '인디펜던트(Independent)'는 "수치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여성은 나오미 캠벨, 남성은 크리스찬 베일이다"고 보도했다.<sup>51)</sup> 그녀는 키 177cm, 34-23-34(inch)의 몸매로서, 세계인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이상적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분석 결과에서도 드러났는데, 글래머(glamour)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

고 있었다. 즉, 그들은 여성적인 관능미를 그 누구보다 물씬 풍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흑인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가장 상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성적 매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매미'의 이미지나, '올랭피아'〈그림 3〉의 뚱뚱한 하녀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세계 여성들이 선망하는 관능적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그림 8〉<sup>52)</sup>

### 3) 다문화성

흑인은 서양에서 500년 이상을 함께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또한 그들의 문화는 '이국적'이란 이름으로 타자화되어 있었다. 백인과 흑인으로 이분화되면서, 흑인 그룹에는 비단 흑인 뿐 아니라 백인이 아닌 모든 사람, 즉 인도계, 아시아계, 라틴아메리카계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흑인과 백인의 패션계가 아직 분리되어 있었을 때에, 흑인 패션 모델들이 백인 패션의 세계에 처음 기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국적인' 이미지가 유행한 시점이었다. 백인과 다른 그 무언을 표현하기 위해 '흑인'모델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다문화성으로 발전하였다. 즉





〈그림 9〉 리야 케베데  
(보그2003년6월호 pp. 332~333)



〈그림 10〉 나오미 캠벨  
(보그 2001년 10월호, p. 352)



〈그림 11〉 알렉 웨이(왼쪽끝) 외  
(보그 2002년10월호, p. 316)



〈그림 12〉 리야 케베데(보그 2003년 7월호, p. 158)

다문화성은 '이국적(exotic)' 이미지가 확장된 것이다. 흑인 여성모델들은 기존의 '이국적'에 포함되었던 동양적인, 아프리카인 이미지 외에도 다양한 지역 문화들의 이미지를 모두 표현하고 있다. 즉, 모든 문화의 민속적인 느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비단 그들의 고향인 아프리카(그림 9)<sup>53)</sup> 뿐 아니라 동양의 문화권(그림 10)<sup>54)</sup>, 제3세계의 문화, 서구권 내 지역문화, 민속 문화들을 모두 표현하는 매체가 되고 있다. 이

는 공간성의 확장 뿐 아니라 시간성의 확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현대 이전의 전통적인 것도 표현하고 있다. 즉, 계몽주의적 사고에서 '타자'에 해당되는 원시, 자연, 전통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는 고갱의 '테나베나베 페누아'(그림 4)의 여인의 원시성과 마네의 '올랭피아'(그림 3)에 나온 흑인 하녀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특히 흑인 하녀 '로르'의 의상을 살펴보면 여러 문화가 혼합된 것을 볼 수 있었듯이, 이것은 현재

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미지인 것이다. '타자'적 시선에 따라 서양 이외의 모든 소수문화들과 민속적인 것들이 흑인 여성 모델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서로 같이 살아왔지만 흑인은 아직도 그들에게 타자로서, 이국적인, 혹은 민속적인 다문화성의 이미지로 남아 있다. 표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긴 하나, 여전히 기존의 '타자'적인 면을 떨쳐버리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인종주의적 한계를 가진다.

#### 4) 환상성

흑인 여성 패션모델이 가진 이미지의 네 번째 특성은 환상성이다. 그들은 현실 세계가 아닌 환상적인 것, 정상이 아닌 뭔가 더 과장되고 이상한 것을 표현한다. 이는 우스꽝스러운 '쿤'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토마스 에디슨의 영화 '열 명의 피커니니(Ten Piccaninies)'(1904)에 나온 흑인 꼬마 피커니니(Piccaninny)는 '쿤' 이미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두 눈이 튀어나오고 머리카락도 바짝 세운 모습으로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재미를 준다.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환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성이 아닌 감성에 호소한다. 흑인 여성 패션 모델에게 있어서 이러한 면은 외모적인 면에서보다 복식에서 주로 나타난다. 몸을 왜곡시키는 복식(그림 11)<sup>55)</sup>이나, 현실적이 아닌,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복식(그림 12)<sup>56)</sup>들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이성과 감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실, 이성, 문화에서 벗어난 야만적인 것, 공상, 허상, 환상의 세계로서 표현되고 있었다. 이는 고갱의 '테 나베 나베 페누아'(그림 4)의 여주인공에 나타나는 야만성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환상성은 타자로서의 다문화성이 다차원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세계와는 반대되는 감성, 공상, 환상의 세계로 넘어감과 동시에, 추상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이미지와 연결되면서도, 표현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면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 5) 인종차별성

2000년대 중반이후, 패션쇼에서 노골적으로 백인 모델만 기용하게 되었다. 모델 에이전트로 변신한 전직 모델 베산 하디슨(Bethann Hardison)은 '지난 10년간 흑인 모델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전락했다'라고 말하면서, 흑인 모델들을 위한 세 번의 미팅을 마련하였다. 이의 영향으로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 회장인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Dianne von Furstenberg)는 뉴욕 디자이너들에게 캐스팅을 하기 전에 다양성을 염두에 둘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흑인 모델을 가진 에이전트들은 쇼의 캐스팅 디렉터들이 '우린 이미 흑인 모델이 있는데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 되지도 않는 흑인 모델 할당이 벌써 다 찼다고요?'라고 묻고 싶다고 한다.<sup>57)</sup> 이는 흑인 여성 모델들이 각각의 개성을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흑인'으로만 보여지고 있으며, 일종의 할당량 내지는 구색 맞추기처럼 흑인 모델을 배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샤넬 이만 로빈슨(Chanel Iman Robinson)은 2007년 '보그' 표지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쇼에서 그녀는 그저 '흑인 여자'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sup>58)</sup> 즉, 아직도 흑인이 인종차별의 뿌리깊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19세기 회화에서는 이러한 인종차별성이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게 표현되었다. 바닥에 앉은 흑인이 의자에 앉은 백인 여성을 우러러 보거나(그림 1), 화면의 제일 구석 혹은 거리상 가장 뒤쪽에 흑인 여성을 배치하는(그림 2) 등으로 표현되었다. 지난 2008년 4월호 커버를 장식한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LeBron R. James)와 지젤 번천(Gesèle Bündchen)의 사진은 인종차별과 관련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르브론 제임스가 크게 포효하며 마치 유인원같은 표정을 짓고, 그의 왼손에는 가냘픈 백인 여인이 잡혀 있는, 마치 현대판 킹콩<sup>59)</sup>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흑인 여성 패션 모델에 대해서 확실히 나타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흑인을 기피하는 경향은 일종의 구색 맞추기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패션쇼에서 매우 작은 흑인 할당량을 나누듯이, 패션사진에서도 다수가

나오는 그룹의 사진에서 마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처럼 흑인 모델이 단 한 명씩 포함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즉 인종차별성의 이미지는 구조적인 면에서 비롯되어 나타난 표현의 결과물인 것이다.<그림 13><sup>60)</sup>, <그림 14><sup>61)</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흑인 여성 패션 모델은 긍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인종주의적인 시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면도 많이 있었다. 흑인 여성 패션 모델의 이미지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그림 13> 나오미 캠벨(오른쪽 두 번째) 외(보그 2001년 10월호, pp. 358~359)



<그림 14> 리야 케베데(왼쪽 끝) 외 (보그, 2000년 7월호, pp. 150~151)

<표 1> 흑인 여성 패션 모델의 이미지 특성

이미지특성	대표사진	내용
강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은 피부에서 느껴지는 강인함</li> <li>• 뛰어난 운동선수들로부터 연상된 육체적 강인함, 강한 아름다움</li> </ul>
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이상적인 체형</li> <li>• 기사 내용에서도 '글래머'란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li> </ul>
다문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성의 확장으로 아프리카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이미지를 표현</li> <li>• 시간성의 확장으로 전통적, 민속적인 이미지를 표현</li> </ul>
환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장·왜곡을 통해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li> </ul>
인종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 사진에서 많은 백인 모델 사이에서 구색 맞추기 위한 등장 등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성 표현</li> </ul>

### 3. 흑인 여성 패션 모델의 이미지 특성에 미친 기존의 흑인 이미지의 영향과 그 변화

흑인 여성 패션 모델의 이미지 특성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흑인 이미지와 연결되는 특성도 있고, 상반되는 특성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흑인 이미지가 2000년 이후 미국 보그지에 나타난 흑인 여성 패션 모델의 이미지 특성에 끼친 영향과 그 변화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인성은, 그들의 검은 피부로부터 기존에도 기본적으로 부여되었던 이미지였으며, '백'과 '매미'의 이미지로서 대중적으로 정형화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강인함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백'의 이미지에서 특히 더 드러났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두려움을 주는 이미지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흑인 여성 패션 모델에게 있어서 강인성은 강한 아름다움을 의미하게 되었다.

관능성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미지였다. 오히려 마네의 '올랭피아'〈그림 3〉에 등장하는 하녀나 '매미' 이미지처럼 성적인 매력을 차단해버린 뚱뚱한 모습으로만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 흑인 여성의 아름다운 몸매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전 세계 여성들이 바라는 이상형이 되었다. 이렇게 관능성은 그들을 가장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다문화성은 마네의 '올랭피아'〈그림 3〉의 흑인 하녀 복식에서도 나타났듯이 여러 문화권을 복합적으로

로 표현하는 이미지였고, 고갱의 '테 나베나베 페누아'〈그림 4〉에서의 원시적 이미지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2000년 이후에는 이 다문화성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모두 확대 되어 아프리카 문화권 외에 동양, 유럽 내에서도 지역문화를 표현하고 있으며,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이미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환상성은 현실적인 것을 벗어난 기괴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쿤'의 변형적 외모,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와 고갱 '테 나베나베 페누아'〈그림 4〉의 야만성으로 나타났었다. 흑인 여성 모델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미지가 보다 과장되고 왜곡되면서 현실적인 것을 벗어난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의 다양한 형태의 복식을 표현함으로써 드러나고 있다.

인종차별성은 기존의 모든 이미지를 지배하고 있던 특성이었다. 장 자크 나티에의 '육실의 클레르몽 양'〈그림 1〉에서는 흑인 노예가 바닥에 앉아 백인 귀족부인을 우러러 보고 있으며, 앙그르의 '노예가 있는 오달리스크'〈그림 2〉에서는 흑인이 제일 뒤쪽, 원근법상으로도 가장 멀리에 배치되는 등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흑인 패션 모델에 있어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은 사라졌으나, 구조적으로 여전히 인종차별성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룹사진의 경우 여러 백인 모델들 사이에 한 명씩 흑인 모델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색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구조적인 면에서 인종차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표 2〉 흑인 여성 패션 모델의 이미지 특성에 미친 기존 흑인 이미지의 영향과 그 변화

기존 흑인 이미지	변화	2000년 이후 흑인 여성 패션 모델의 이미지
'백', '매미' 이미지의 검은 피부, 폭력성, 육체적 강인함	→ 긍정적 이미지화, 강한 아름다움 인정	→ '강인성'이 기본적 이미지가 됨
'매미', 마네 '올랭피아'의 흑인하녀의 성적 매력 차단	→ 여성적 아름다움 인정	→ 이상화된 '관능성'
마네 '올랭피아'의 흑인 하녀 복식의 다문화성 고갱 '테 나베나베 페누아'의 원시성	→ 시공간적 확대	→ 다양한 문화권 및 전통적, 민속적 이미지를 모두 포함하는 '다문화성'
'쿤'의 변형적 외모, 우스꽝스러운 이미지 고갱 '테 나베나베 페누아'의 야만성	→ 보다 과장·왜곡·추상화	→ 다양한 형태의 '환상성'
장 자크 나티에 '육실의 클레르몽 양'과 앙그르 '노예가 있는 오달리스크'의 흑인 노예의 배치구도	→ 직접적 표현은 사라짐	→ 구색 맞추기 등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성' 존재

2000년 이후 미국 보그지에 나타난 흑인 여성 패션 모델의 이미지 분석 결과에 미친 기존의 흑인 이미지의 영향과 이미지 변화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IV. 결론

역사적으로 흑인은 서양인들에 의해 철저히 타자화되어 식민지배와 수탈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야만성, 비이성, 원시성 등으로 이미지화되어왔다. 그러한 흑인이 1990년대에 여성들의 미의 이상형인 슈퍼모델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성공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들이 흑인 모델로서 가진 특징적인 이미지를 분석해보았다. 첫 번째는 강인성으로, 이것은 그들의 피부색과 육체적 강인함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미지이다. 두 번째는 관능성으로, 여성이 선망하는 가장 완벽한 몸매로서 여성들의 이상형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다문화성으로, 서양 주류 문화 외의 이국적인 이미지, 민속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네 번째는 환상성으로, 현실적이거나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이상하고 환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종차별성으로, 아직도 흑인 여성모델들은 각각의 개성보다는 '흑인'이라는 인종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위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체적 차이로 인한 인종주의적 굴레에서는 많이 벗어나, 오히려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인정받고 있으나, 강인성, 다문화성, 환상성, 인종차별성에서 볼 수 있듯이 인종주의적 시각을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었다.

사실 패션계는 가장 보수적인 분야로서, 인종주의적 관행이 타 영역(예술분야)에 비해 가장 오래 지속되었다. 흑인 모델들이 무대에서 대활약을 하던 80년대와 90년대의 전성기에도 그들이 등장한 커버는 훨씬 적었다.<sup>62)</sup> 왜냐하면, 직접 구매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상형을 보여주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판매자는 함부로 모험을 할 수 없었다. 70년대 이전

까지 흑인과 백인의 패션계는 분리되어 있었으며, 모델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서양인, 특히 미국인의 의식 속에 인종차별주의는 깊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패션계의 질적 양적인 성장과 다양화의 바람을 타고 슈퍼모델로서 나오미 캠벨이 1991년 등장한 이후 흑인모델은 그 신체적 독특한 아름다움을 무기로 90년대를 휩쓸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디자이너들의 패션 쇼나 잡지에서 흑인 여성 모델의 기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급기야 2007년 9월 14일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 호텔에서 흑인 모델들이 모여 패션산업계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인종차별주의의 재발이나 단순한 트렌드의 문제냐의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 보그지 2008년 7월호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Black Issue'라는 흑인 여성 모델들만을 다룬 특별호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쉽없이 변화하고 창조해야만 하는 패션계에서는 다양성에 기초한 각각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의 이상형인 패션 모델에 나타난 흑인 여성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그들이 만들어 내었다기 보다는 현대 사회가 그들에게 부여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로서, 현대 흑인의 패션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탈식민주의 시대의 흑인의 패션문화의 현황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이호정, 이윤숙 (1997). *패션비즈니스 사전*. 서울: 교학사.
- 2) 제인용 양의식 (2004). *패션의 변천사에 따른 패션 모델의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구패션 100년사, 국내 패션 50년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5.
- 3)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1994), 25권, p. 633.
- 4) 피 한 방울의 범칙 : 흑인 피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으로 신분이 확정됨을 의미하는 미국 남부사회의 불문율, 장태한 (1993).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pp. 101~108.
- 5) 김지은, 조규화 (1998). *아프로패션에 관한 디자인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지*, 2(1).
- 6) 모리스(Morris, 1996)에 의하면 모델은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되는데, 다양한 컬렉션과 정기적 패션쇼 등에서 활

- 동하는 캣워크(catwalk) 모델과 카달로그, 잡지, 전단, 신문 등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고정된 자세로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사진 모델이 그것이다. 특히 잡지 표지 모델은 많은 모델이 선망하는 분야인데, 그 이유는 엘르(Elle)나 보그(Vogue) 등의 표지모델이 된다는 것은 그 모델의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Morris, S. (1996). *Catwalk inside the world of the supermodel*. New York: Weidenfeld & Nicolson, 양의식 (2004). 재인용, 위의 책, p. 6.
- 6) 강철구 (2001). 서구문명과 인종주의: 이론적 접근. 서양사론 70호, pp. 8-10.
- 7) 위키백과(ko.wikipedia.org), 검색일: 2008년 9월 25일.
- 8) 강철구 (2001). *앞의 책*, p. 17.
- 9) *위의 책*, pp. 18-19.
- 10) *위의 책*, pp. 21-22.
- 11) *위의 책*, pp. 25-29.
- 12) *위의 책*, pp. 34-37.
- 13) 최재현 (2003). '할렘 르네상스'기 미국 흑인의 정체성과 인종 문제: 카운티 컬런과 랭스턴 휴즈. *신영어영문학* 25, pp. 220-221.
- 14) 김지은, 조규화 (1998). *앞의 책*, p. 29.
- 15) 벤자민 왈스 (2002). *미국흑인사*. 조성훈, 이미숙 역. 서울: 백산서당, pp. 274~278.
- 16) Ebine, Toshio (1996). *世界美術大全集: 西洋編, 18권*, 東京: 小學館, p. 344.
- 17) 임보람 (2007). 19C 프랑스 회화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5-67.
- 18) 김향숙 (2002). 19세기 프랑스 회화에 나타난 하렘 모티프. *미술사학*, 16(1), p. 69.
- 19) Ebine, Toshio (1996). *世界美術大全集: 西洋編, 19권*, 東京: 小學館, pp. 141~142.
- 20) 座右寶刊行會 編 (1970). *現代世界美術全集, 1권*. Ed. Manet, 東京: 集英社, p. 9.
- 21) 임보람 (2007). *앞의 책*, pp. 65-67.
- 22) *위의 책*, pp. 65-67.
- 23) 장태한 (1993). *앞의 책*, p. 106.
- 24) Gauguin, Paul (1976). *세계미술문고30, 제1권*, 서울: 금성출판사, p. 33.
- 25) 임보람 (2007). *앞의 책*, p. 63.
- 26) L. J. Jordanova (1980). *Natural Facts: A Historical Perspectives on Scince ans Sexuality. Nature, Culture and Gender*(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김정선, 김민자 (2001). 재인용, 박토리아시대 유행복식과 반(反)유행복식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I. *복식*, 51(2), pp. 171~172.
- 27) 강철구 (2001). *앞의 책*, pp. 34-37.
- 28) 신문수 (2006). 근대성·인종주의·문학. *영어영문학*, 52(2), p. 219.
- 29) 장태한 (1993). *앞의 책*, p. 278.
- 30) 정재형 (1992). 인종서가의 미국영화 분석. *영화학보* 3/4, pp. 22~23.
- 31) 장태한 (1993). *앞의 책*, p. 280.
- 32) 정재형 (1992). *앞의 책*, pp. 23~24.
- 33) *위의 책*, p. 24.
- 34) *위의 책*, p. 25.
- 35) 장태한 (1993). *앞의 책*, pp. 281-283.
- 36) 임보람 (2007). *앞의 책*, p. 37.
- 37) 한정미 (1988). *국내 패션쇼에 대한 실태분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4-6.
- 38) Rudolph, B. (1991). *The Supermodels*. New York: Modern Times 양의식 (2004). 재인용, *앞의 책*, p. 53.
- 39) Duane Thomas (2002). *Soul Style: Black Women Redefining the Color of Fashion*, Universe, p. 42.
- 40) *위의 책*, pp. 48~58.
- 41) *위의 책*, p. 62.
- 42) 양의식 (2004). *앞의 책*, p. 53.
- 43) Duane Thomas (2002). *앞의 책*, pp. 53~58.
- 44) 장태한 (1993). *앞의 책*, p. 125.
- 45) *Vogue*, 2007년 1월, p. 62.
- 46) *Vogue*, 2004년 3월호, p. 566.
- 47) *Vogue*, 2008년 7월, p. 136, p. 138.
- 48) *Vogue*, 2008년 7월, p. 136, p. 138.
- 49) *Vogue*, 2004년 1월호 p. 38.
- 50) 양의식 (2004). *앞의 책*, p. 53.
- 51) 김정옥. *테일리노컷뉴스*, 2007.3.13. 검색일자 : 2007년 11월 29일
- 52) *Vogue*, 2001년 9월호, p. 358.
- 53) *Vogue*, 2003년 6월호, pp. 332~333.
- 54) *Vogue*, 2001년 10월호, p. 352.
- 55) *Vogue*, 2002년 10월호, p. 316.
- 56) *Vogue*, 2003년 7월호, p. 158.
- 57) *Vogue*, 2008년 7월, p. 136, p. 138.
- 58) *Vogue*, 2008년 7월, p. 136, p. 138.
- 59) 이윤진. *연합뉴스*, 2008.3.31. 검색일자 : 2008년 4월 7일
- 60) *Vogue*, 2001년 10월호, pp. 358~359.
- 61) *Vogue*, 2000년 7월호, pp. 150~151.
- 62) *Vogue*, 2008년 7월, p. 136, p. 138.